

8/7/22

설교 제목: 예수님에 대한 증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5 장 31-47 절

- (요 5: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 **절관주** 요 8:14
- (요 5:32)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 (요 5: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 (요 5: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절관주** 1 요 5:9
- (요 5:35) 요한은 쉰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절관주** 마 3:5, 막 6:20
- (요 5: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 (요 5: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 (요 5: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 (요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 (요 5: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 (요 5: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 (요 5: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 (요 5: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 (요 5: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절관주** 요 9:28, 롬 2:17

(요 5: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절관주 창 3:15, 신 18:15

(요 5: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가진 권세를 피력하신 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체적인 근거는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 자신의 역사,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 성경 말씀의 증언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증언들을 증거로 대시며 이것을 믿고 당신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같은 증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본인 스스로 증언하는 것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요 5: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요 5:32)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참되지 아니하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두 명 이상의 증언없이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증언을 당신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1.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요 5: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시라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 1: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제시하시면서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당신을 증거하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5: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 5:35) 요한은 쉰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세례 요한은 당시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따랐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야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그를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따랐는지를 사람들이 요한의 빛 안에 있기를 극도로 즐겼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연유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면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 2. 예수님 자신의 역사를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일들이 당신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신 일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아들 예수에게 주셔서 이루게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 5: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등 이적을 보이신 것은 그것 자체를 드러내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은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인 신비한 사건과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됩니다.

## 3.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요 5: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이 애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덮으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막 9: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막 9: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막 9: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막 9: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막 9: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막 9: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켜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말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 있어서 보아도 볼 수가 없었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립니다.

#### 4. 성경 말씀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이 당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 5: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고자 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찾으려 할 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성공하는 법, 복 받는 법, 행복해지는 법, 위로와 격려의 말씀 등을 찾는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 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네가 내게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요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요 5: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 5: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 5: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증언하는 말씀을 여러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바라는 방식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채워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온다면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따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으로 오는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이유를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5: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이런 자들의 최종적인 심판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5: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요 5: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 5: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또  
말씀의 증언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심을 분명하게 밝히셨음에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의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부와 번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와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은 길어야 100 년입니다.

그러나 내세의 삶은 영원합니다.

100 년의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눈과 귀가 열리어 성경 말씀이 들리고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이시간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